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와의 상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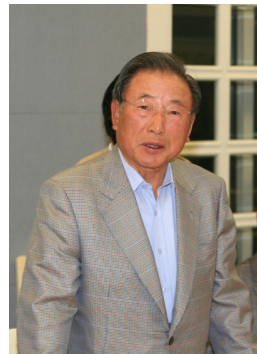
우리협회 회장단은 (주)효성의 스폰서와 송추C.C의 협조로 지난 11월 10일(토)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을 위해 주한일본대사 초청 정기모임을 송추CC에서 가졌습니다. 금번 모임은 지난 9월에 부임한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와 우리협회 회장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세영(朴世英) 부회장(한국팬트랜드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 우석형(禹石亨) 부회장(신도리코 회장),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회장단 15명(부부 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시게이에 토시노리(重家 俊範) 주한일본대사, 오이케 아츠유키(尾池 厚之) 공사 등 3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석래 회장은 “부임한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주한일본국 특명전권대사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대사님의 부임은 한일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한일 양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사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도 잘 이끌어 주시어,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JE**

한일 기업인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 논의

~ 제9회 한일新산업무역회의 ~

지난 2006년 제8회 회의에서 본 회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안된 이후 Task Force를 구성하여 새로운 회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명칭도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新산업무역회의'로 변경하여 첫 번째 회의인 『제9회 한일新산업무역회의』가 지난 11월 12일(월)~13일(화)까지 일본 요코하마시 팬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유창무 চে어맨(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40명, 일본측에서는 아소 유타카(麻生 泰) চে어맨(아소라파주시멘트 사장) 등 35명이 참석해 「저출산과 기업경영」, 「한일간 최근의 투자현황과 사례」, 그리고 「한일 기업간 협력방안」이라는 테마로 상호 정보교환 및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양국의 공동과제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한일기업간 협력을 위한 의견교환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한일간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 사례를 통해 상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일산업무역회의를 한일新산업무역회의로 개편, 개최한 첫 회의로 회의 운영과 내용을 새롭게 시도한 회의로서 논의로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의기간을 기존의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운영하였으며, 양국 기업인들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한일간 자격증 상호인증검토 등 구체적인 제안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중견기업 견학을 통해서 일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의 원동력인 생산기술력의 현상과 창조적인 상품개발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교류간담회를 통해서 양국기업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양국 위원간의 미스매칭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일본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이 다수 참가하여 해소될 수 있었다는 평가이나, 실질적으로는 양측 대기업간 논의는 다소 부진했다는 아쉬움과 아울러 임시방편적 구성이라는 지적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각 발표된 제언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보강을 거쳐 내년 5월 일본 치바현에서 개최되는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사안에 따라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에도 건의될 예정입니다. **JE**

일본 호쿠리쿠(北陸)지역과 21개 협력사업에 합의

~ 제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 울산, 강원, 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 3縣 :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현)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1월 7일(수)~10일(토)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산업기술협력 : 강원도/도야마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산업공동연구(한국산기대), 대구바이오/한방산업지원센터와의 국제공동연구(대구테크노파크), 섬유, 기계, 금속 가공분야 클러스터간 협력(한국산단공), 한일우호기술연수생 프로그램 사업 협력(한국테크노마트) 등

한편 이번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한 호쿠리쿠(北陸) 지역 3개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우리 중소기업 8개사가 참여하여 변압기용 방열기·탱크 등 총 9건 32만 불의 상담(20만 불 성약가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기 회의는 2008년 5월 21일(수)~25일(일) 일본 카나자와(金澤)시에서 e-messe(호쿠리쿠 최대 디지털 종합전), MEX(기계공업전시회) 전시회와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

* 우리측 : 산업자원부(통상협력기획관),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54명

* 일본측 : 경제산업성 추부(中部)경제산업국(국장), 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41명

이번 회의에서는 양 지역간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 협력 등 2개 의제, 총 21개 경제협력 사업(한국측 제안 : 13개, 일본측 : 8개)을 제안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파트너십 구축 :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협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국제물류지원단이 주관하는 일본내 IR 행사 참여(한국무역협회), 기업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일본기업 투자 입주 홍보(강원도), '2013 세계에너지총회' 등 전시회 개최 협력(대구광역시) 등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韓·中·日 협력 필요성 공감

~ 제7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일본 쿠마모토(熊本)에서 열려 ~

우리나라 서남해(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과 중국 환황해 연안(3시·4성 : 北京·天津·上海市, 遼寧·河北·山東·江蘇省)지역 및 일본 규슈(7현·2정령시 :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쿠마모토·오이타·미야자카·가고시마현, 후쿠오카·키타큐슈시)지역과의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관계자가 함께 만나 3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7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지난 11월 26일(월)~11월 29일(목)까지 일본 쿠마모토시(熊本市)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 우리측 : 산업자원부(통상협력기획관), 중소기업청,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119명
- * 일본측 : 경제산업성 규슈(九州)경제산업국(국장),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290명
- * 중국측 : 상무부(아주사부사장)·과학기술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85명



에서는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 분야에 초점을 두고 3국간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전체회의와 병행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비즈니스 확대와 산학관 교류에 공헌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 (1) 산학관 제휴에 의한 비즈니스 포럼, (2) 환경 비즈니스 미팅, 바이오 클러스터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이 3번째가 되는 (3) 대학 총장 포럼에서는 인재육성을 테마로 「교육」, 「연구」, 「산학제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참가 기관 간 경제협력 MOU 체결>

* 양해각서 [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① 산학연 충남지역협의회·산학연 대전지역협의회와 第一施設工業(株)
산학연 충남지역협의회·산학연 대전지역협의회와 北九州 국제IT Business추진회
(대전·충남지역과의 비즈니스, 인재, 기술교류에 대한 협력)
- ② 한국산업단지공단과 K-RIP(규슈지역 환경·리사이클산업교류플라자)
(환경분야 기술교류, 인재파견 등 상호교류추진)
- ③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키타큐슈무역투자원스톱서비스센터(KTI)(경제교류협력)



9만불 상담 실적 거두고 귀국

~ 제77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시큐리티 솔루션 2007” ~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 하면서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이, 금번 77차 미션을 14개사 20명으로 구성하여 10월 23일(화)~27일(토)까지 일본 동경에 파견되었습니다.

금번 미션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견본시 『시큐리티 솔루션 2007』 개최기간에 맞춰 동 견본시와 연계하여 전시장내 별도 부스를 설치 내방객 및 사전 어랜지를 통한 바이어와 1:1 상담회를 갖는 Fair in Fair 형태의 상담회로, 상담기간 동안 35건의 비즈니스상담을 통해 9만불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두고 귀국 하였습니다.

한편 본 미션은 JETRO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작년까지 수많은 우리중소기업의 일본시장진출을 측면 지원해 왔으나, 최근 JETRO 구조조정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내년부터 공동 협력사업으로 계속 추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고 대신하여 한일·일한 양국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부품소재상 호보완상담회에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양사무국간 협의 마쳐

~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양 경제협회의 2007년도 정례업무협회가 12월 12일 (수)~14일(금) 일한경제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측에서는 허 남정 전무이사 등 5명이, 일본측에서는 武澤 泰(타케자와 타이) 전무이사 등 5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양 협 회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 협의가 있었고, 특히 2008년도 치바 우라야시에서 개 최되는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2008. 5. 15~17)에 대한 현장 답사 및 세부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일본 경단련회관에서 열려



10월 30일 일본 도쿄(東京)의 경단련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한·중·일 경제인 30여명이 3국간 자유무역협 정(FTA) 체결을 통한 조속한 경제통합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 경련이 밝혔습니다. 금번 포럼에서 3국 기업인들은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FTA, △중국의 통상, 외자 이용 정책의 전환과 중국 시장 전망, △환경, 에너지 절약 문제와 기업의 환경경영 등 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포럼 위원장인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기 위해 FTA 체결을 통한 3국간 경제통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경제계 인사들도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중심의 선 별적 투자유치 등으로 최근 중국 내 경영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본 포럼은 동북아 지역 내 교역량 증 가와 상호투자 확대 등을 위해 3국 민간 경제계가 2000년 설립해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지금...

원유가격 상승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7년에 들어선 후, 원유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의한 수요증대,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기자금의 유입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7월 이후 서브프라임 문제 발발로 인해 구미 각국에서 경기동향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선진국 경기와의 연동성이 약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신흥국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유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일본경제를 살펴보면, 내수부진으로 인해 최종제품 서비스가격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가격상승의 대부분은 기업부문의 코스트로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원유가격의 상승이 일본의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기업부문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한정적

우선 원유가격의 상승이 기업부문전체에 미치는 임팩트를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배경으로, 마이너스 영향은 한정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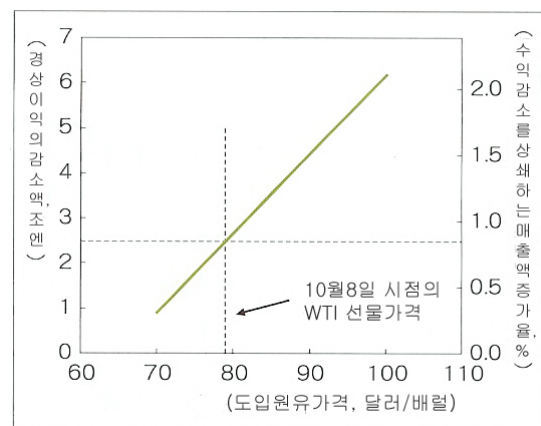
첫 번째로 제조업주도의 완만한 경기회복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매출액의 증가가 예상된다.

2007년 초부터 약세를 보이던 광공업생산이 재고조정 종료에 의해 여름철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당분간은 비교적 높은 페이스로 증산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서브프라임 문제 확대로 구미에 대한 수출둔화가 염려되는 한편, 계속해서 신흥국·자원국에 대한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은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고정비 삭감 등을 통해서 수익체질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과거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비율도 버블기를 밀도는 수준으로 저하하는 등,

외적 쇼크에 대한 내구력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꽤 높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수익구조로 미루어 원유가격이 앞으로 1배럴=80달러로 움직이고, 가격상승분은 전부 기업부문에서 흡수될 것이라고 전제하여 계산해 보면 기업부문전체의 경상이익은 연간 2.7조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도표 1) 이것은 2006년도 경상이익의 4.5%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다만 매출액이 0.9% 증가하면 이 정도의 수익하락세 영향은 상쇄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일본기업전체로서 수익증대경향은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1) 원유가격의 상승이 기업수익에 미치는 영향 (향후 1년간)



(자료) 재무성 데이터를 기초로 일본종합연구소 작성
(주) 원유가격의 상승분이 모두 기업부문에서 코스트로서 흡수된 것으로 계산

중소기업을 통한 마이너스 영향이 문제

하지만 규모간, 업종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기업수익에 대한 임팩트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이를테면, 대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은 한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에서는 ① 매출액 증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② 수익체질에 대한 개선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수익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

한 「취약함」의 배경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에서는 일본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화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가가치창조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금번 경기회복국면(2002년 1월~)의 매출액 연평균신장률을 보면 대기업의 4.4%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2.4%, 그리고 제조

업의 5.1%에 비해 비제조업에서는 3.1%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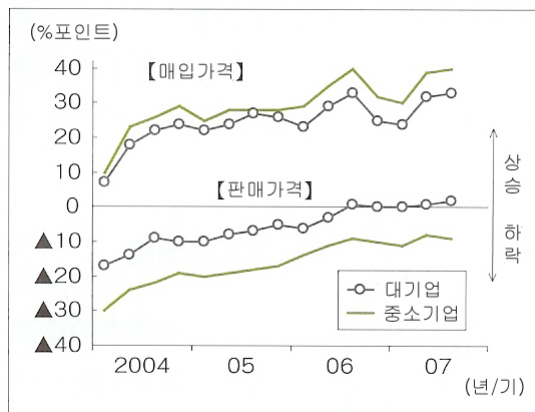
두 번째로 글로벌화에 따른 조달처의 다양화, 국제경쟁의 격화 등을 배경으로 가격교섭력이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단관(日銀短観:企業短期經濟觀測調査)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원재료가격의 상승압력이 강한 한편,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도표 2)

이렇듯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부문에 있어서,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코스트업은 무거운 부담이 되는 한편, 매출액의 회복력이 취약하여 기업수익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가격이 앞으로 더욱 상승하게 된다면, 이들 분야의 실적악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① 코스트업을 흡수하기 위하여 인건비삭감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② 실적악화로 기업도산이 증가하게 되는 루트를 통하여 개인소비를 위축시킬 염려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효율화촉진책을 확충함과 동시에, 일본기업으로서도 수요구조의 변화에 맞는 사업전략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표 2) 가격판단미의 추이



(자료) 일본은행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자료출처 : Monthly Review 2007. 11>

『아시아 공동체』 환경을 축으로 제창 ~ 후쿠다 정권의 신성장전략 ~

12월 13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새롭게 내건 경제성장 전략의 골격이 발표되었다. 아시아각국과 환경과 에너지 절약, 지적 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역 내의 성장을 도모하는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의 실현을 제창한다. 일본 내에서는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휴를 강화하여 고용과 수요를 촉진한다. 인구 감소 하에서도 향후 10년간 2%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지속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성장 전략을 담은 경제 운영의 중기 지침 「진로와 전략」을 책정한다. 신성장 전략은 총리가 11월 8일의 경제 재정 자문 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하였다. 신전략은 아시아와의 제휴를 통해서 일본의 성장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창한다. 특히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환경, 에너지 절약,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룰(rule)을 만들어서 협력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에서는 일본정부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출자하는 펀드의 창설을 검토. 에너지 절약과 새로운 에너지 개발 등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다루어 제도 구축도 동시에 지원한다. 경제제도정비의 협력을 통한 룰(rule)의 공통성을 만들고, 일본으로부터 아시아에 대한 투자환경을 향상시킨다. 한국,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각국연합(ASEAN)을 넓게 포용하는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일본 내에서는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간 정보와 인재를 공유하는 “연계”를 내세운다. 道州制의 검토와 대기업 퇴직자가 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취직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한다.

<자료출처 : 닛케이신문 2007. 12. 13>



1. 타산을 버린다. ☞ 비즈니스 상에서 요구되는 인맥이야말로 손익을 버리고 생각한다. 언뜻 보면 역설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사귀다면, 그것은 결코 폭넓은 인맥으로 발전할 수 없다.

2.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 곧바로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타인과 교류한다면 인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관계를 맺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 10년, 20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생각하여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얻기 전에 베풀어라. ☞ 인맥 만들기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받기만 하는 인간관계는 결코 길게 가지 않는다. 테이크 앞에 기브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은 인맥 만들기의 기본이다.

4. 인연을 소중히 한다. ☞ 인간이 일생 동안 알게 되는 사람의 수는 뻗은 수준이다. 평생의 친구라도 그 만남은 사소한 우연의 결과일 때도 있다. 인맥 만들기는 선거운동과는 다르다. 그저 닥치는대로 수많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우선은 양보다도 하나하나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상대를 배려한다. ☞ 커다란 인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상대가 있고 나서 자신이 있다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자.

6. 융통성을 가진다. ☞ 폭을 넓힌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다. 인간이 타인에게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성격이나 능력 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인맥도 자신과는 다른 타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 이질적인 타인과의 사귄 수 있을 만큼의 융통성을 꼭 익히기를 바란다.

7.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 적극적·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상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정도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8. “자신”을 만든다. ☞ 자신을 만든다는 것은 타인이 봤을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혹시 그 상대도 인맥을 만들고 싶어한다면 인맥은 넓힐 것도 없이 자연히 넓어질 것이다. 인맥을 만드는 것은 사실 자신을 갈고닦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9. 교류를 소중히 한다. ☞ 친한 사이에서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거리이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가까움”이 중요하다.

10. 사람을 좋아한다. ☞ 인맥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가 제일 바람직한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을 좋아하는” 인간의 감정을 베이스로 한 관계이다. 상대에게 호의를 가지면 그 마음은 자연히 상대에게 전달되어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자료출처 : 人脈のつくり方(PHP研究所)>



2007년 11월 한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는 265개(18홀 환산기준), 골프인구도 연 인원 2000만명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골프장 2500여개가 영업 중이고 인구수가 한국보다 약 2.6배 많은 일본의 골프장은 어떨까요? 한국의 골프장과 다른 점 10가지를 찾아봤습니다.

- 1. 영업시간이 짧다.** ☞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첫 티업이 아침 7시쯤 시작돼 오전 11시쯤이면 끝난다. 여름이면 일출 시간부터 시작하여 2·3부제로 운영되는 한국의 골프장보다 영업 시간이 훨씬 짧다. 또한 내장객 수는 일본이 훨씬 적어 골프장이 혹사를 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 2. 라운딩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다.** ☞ 전반 9홀이 끝나면 약 1시간가량의 휴식 시간이 있어 도우미나 경기과에서 후반의 티업 시간을 알려주는 표찰을 준다. 이때 대부분 클럽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 3. 스코어카드는 개인이 직접 적는다.** ☞ 자기 스코어카드를 자신이 적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스코어카드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붙어 있는 사물함 키를 사용한다.
- 4. 다음 샷을 위해 골퍼 자신이 클럽을 준비한다.** ☞ 도우미와 라운딩을 함께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골퍼 자신에게 있으니, 클럽을 챙겨 나가는 것도 당연히 골퍼 자신의 일이다. 한국의 경우 모든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나가서 “언니 몇 번 줘!”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5. 도우미(캐디)는 대부분 지역 주민인 노년의 여성** ☞ 한국이나 동남아처럼 젊은 언니 도우미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캐디피는 당연히 도우미 개인이 아닌 골프장에 지불하며 캐디에게는 그날집에서 통상 1000엔의 선물권을 사서 선물한다.
- 6. 셀프 라운딩이 대세** ☞ 핀까지의 거리나 그린의 라이·바람·경사 등을 자신이 판단하며 라운딩을 즐기려는 마니아가 대부분이다. 비용을 고려하여 도우미 없이 ‘셀프 라운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 골프장에서는 예약 때 캐디 동반 희망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니 카터에는 각 홀의 거리·그린의 핀 위치 등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티업 전 담당자가 골프장의 전반적 상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 7. 그린피 및 식음료 가격 등 골프비용이 한국의 반 값이다.** ☞ 한국의 경우 골프장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골프인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너무 크다. 이러니 골프채를 매고 중국, 동남아, 일본으로 떠나 비싼 외화를 낭비하는 골퍼들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을 탓할 수도 없다.
- 8. 귀중품 보관함이 있다.** ☞ 일본의 어느 골프장에 가더라도 지갑 등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비치되어 있다. 일본의 주말 골퍼들도 여러 종류의 내기는 많이 하지만 타당 50엔 정도로 금액이 작고 추후 스코어 카드를 보며 정산한다.
- 9. 비옷·골프화·우산 건조장이 있다.** ☞ 일본의 골프장에는 어느 곳이나 비옷·신발을 말리는 건조장이 있다. 물론 전반 라운딩 뒤의 휴식 시간에 사용할 수 있지만, 비가 내릴 때 아주 요긴하다.
- 10. 자그마한 서비스가 고객을 감동시킨다.** ☞ 비를 맞으며 흠뻑 젖고 클럽하우스로 올라오니 ‘비도 내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커피 서비스 중입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어있고, 담당 여직원이 커피를 서비스 해준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고객 사랑을 듬뿍 느낀다.

<자료출처 : 天仁(blog.joins.com/smklee)>

기획 연재 - 일본의 機械遺産 (下)

일본 기계 학회는 올해 11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에 남는 기계 기술 관련 유산을 소중히 보존하여 문화적 유산으로서 차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내의 기계 기술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계유산」(Mechanical Engineering Heritage)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는 이 기계유산은 학술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계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일본 국민생활과 문화, 경제적으로 공헌하였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기계나 기기 외, 기계 관련 시스템, 기계 공장, 설계 시방서나 교과서 등이 인정됩니다. 인정 후에는 소유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계속 보유하지 못할 경우에 국립 과학박물관이나 자치체로 이관을 중개함으로써 처분이나 유실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25가지 기계유산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旅客機

Japanese made Passenger Airplane Type YS11

일본국립과학박물관이 소장 보관하고 있는 YS-11기는, 일본항공 공기제조사업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양산(量産) 1호기(제조 번호 2003)로서 당시 운수성항공국이 사용한 것이다. 기체등록번호로 JA8610를 부여받은 이 비행기는 1964년 10월 12일에 첫 비행을 하였으며, 비행검사용으로도 사용되어 최종 비행이 된 1998년 12월까지 2만 시간을 넘는 비행 실적을 갖고 있다. YS-11기종 중에서도 특히 기념비적 가치가 높은 기체이다.



号

カブ号 型 ホンダ自転車用補助エンジン

Cub Typ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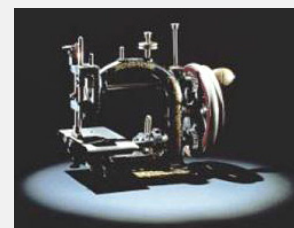
혼다 Cub호 F형은 1952년에 발매된 자전거용 보조 엔진이다. 자전거 뒷바퀴축의 회전축 부분에 부착되어 드라이브 체인으로 뒷바퀴를 구동한다. 엔진은 피스톤 밸브·횡단 소기식 2 사이클 단기통으로, 배기량 49.9㎤, 최고 출력은 3,000rpm으로 1PS의 성능을 가졌다. 「흰 탱크와 붉은 엔진」이라는 독특한 디자인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당시의 유행망을 크게 변혁시켜, 대량생산한 공업제품으로서의 이륜차 시장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소형 이륜차의 원형이 된 역사적인 기계이다.



麦わら帽子製造用環縫ミシン

Chain-Stitch sewing machine for the production of straw hats

1920년대 초엽, 일본의 미싱 시장은 싱어사의 독점 상태였다. 브라더공업(주)의 창업자 야스이(安井) 형제는 미싱 제조에 필요한 기술인 기계 가공 기술과 열처리 기술의 개발에 착수, 1928년 밀짚모자 제조용 환봉미싱인 쇼조식환봉미싱(昭三式環縫ミシン)을 개발, 판매하였다. 야스이 형제는 시행착오 끝에 침탄담금질(carbonizing) 기술을 확립, 이 기술을 기초로 독일제가 주류였던 밀짚모자 제조용 환봉미싱의 일본국내생산화에 착수하여, 외국제품에 지지 않는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개발한 것이 쇼조식환봉미싱(昭三式環縫ミシン)이다. 처음에는 매출이 좋지 않았지만, 그 내구성은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無停止杼換式豊田自動織機 型 第1号機)

Non-Stop Shuttle Change Toyoda Automatic Loom, Type G

이 방직기는 토요다 사키치(豊田佐吉)가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일생을 받쳐 발명, 완성시킨 완전 자동직물기이다. 직포업(織布業)을 세계적 레벨로 끌어올리고, 일본 산업 근대화의 선구를 이룬 이 방직기는 세계 각국의 섬유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세계의 톱 메이커인 영국의 플렛사에 기술을 공여하고, 토요타 그룹 생성·발전의 기본이 된 기념비적인 기계유산이다.



活版印刷機

Japanese Made Hand Operated Type Printing Machine

1885년경에 제조된 일본 국산 활판 인쇄기이다. 근대적인 활판 인쇄는 15세기 중순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목제 인쇄기를 개발함으로 시작되었다. 이 인쇄기를 제조한 히라노 도미지(平野富二)는 그 스승인 모토키 쇼조(本木昌造)와 함께 일본 근대 활판 인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 앨비온(albion)형 활판 인쇄기는 메이지 기에는 활발히 이용되었지만, 일본국산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은 몇 대 없으며, 메이지 초기의 히라노 활판 제조소에서 만든 인쇄기는 본 기가 확인될 뿐이다.



コマツブルドーザー

小松1型均土機

KOMATSU Bulldozer G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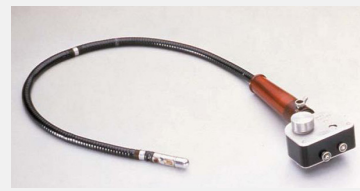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는 공항기지 건설 등의 목적으로 중토공사기계(重土工機械)를 생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위해 이미 개발·제조되어 있던 가솔린 기관 트랙터의 전방에 압토용(押土用) 블레이드를 장착하는 개조로 탄생한 것이 일본 최초의 불도저 G40이다. 1943년 당시의 불도저 작업기는 미국에서도 케이블 식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코마쓰 불도저 G40은 유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우 획기적이었다.



オリンパス ガストロカメラ

OLYMPUS GASTROCAMERA GT-I

Olympus의 의료 사업을 지탱하는 내시경의 출발점은 반세기 이상 전의 위카메라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쿄대학 분원의 의사가 Olympus에 「환자의 위 속을 비추는 카메라를 만들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1950년 탄생한 시험 제작기는 당시에는 불만족스러웠지만, 도쿄대학 내과 의사와 Olympus 기술개발진의 협력으로 수많은 난관을 통과했다. 위카메라는 내시경으로 발전, 현재 온 세상의 의료현장에서 검사나 치료를 서포트하는 의료기기로서 활약하고 있다.



バックトン万能試験機

Buckton Universal Test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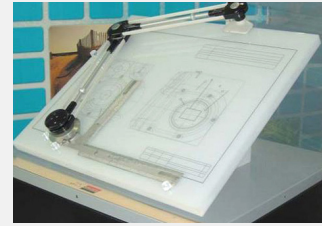
1908년에 미츠비시 합자회사 고베조선소의 화학분석계에 설치된 것으로, 부하 능력은 30t이다. 고베조선소에서 제작된 선박·원동기·기계의 중요 부재(部材)의 시험에 사용되어 많은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1975년에 미츠비시중공업(주)의 기술적 기념물로 지정되어 타카사고 연구소에 영구 보존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Buckton 시험기로서 일본의 재료 강도 시험의 시발점을 나타내는 귀중한 기계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
 万能製図機械 「ドラフター」

All around drafting machine, MUTOH "drafter Type M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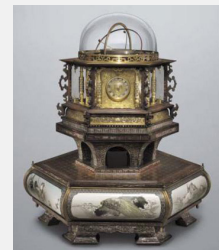
일본 최초의 설계 제도 기계인 「Drafter MH-1」은 1953년, MUTOH 홀딩스(주)의 전신인 「(주)무토눈금조각(무토메모리초코쿠武藤目盛彫刻)」의 창업자 무토 요시로(武藤与四郎)에 의해 탄생했다. 이 기구는 당시 제도기기의 주류였던 「사다리형 평행암식」이 아니라, 무토요시로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벨트·플리식」이다. 평행도 조절을 의식하지 않고도 평행도를 고정밀도로 유지할 수가 있어 물건제작의 기본인 제도라는 작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万年自鳴鐘

Man-nen Jimeisho

만년 시계(정식명칭:만년 자명종)는 1851년에 토시바의 창업자인 다나카 히사시 계가 설계·제작한 기계식 일본시계다. 만년 시계는 일년에 한 번 태엽을 감는 것만으로, 시각표시가 계절에 맞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획기적인 일본시계이다. 전체가 연동해 움직이는 기구의 독창성이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철공과 나전, 조금(彫金) 등의 아름다운 장식까지 갖춘 만년 시계는 「장인 기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旧筑後川桥梁』(筑後川昇開橋)

The Chikugo River Railway Lift Steel Bridge

규모 최대의 하천인 치쿠고강의 하구 부근에 놓은 다리로 1935년에 개통한 옛 국철사가선(사가佐賀~세타카瀬高·24.1km)의 철교이다. 전체 길이 507.2m로 일본 내 유례없는 크기이며, 현존하는 일본 내 최고의 승개식 철교로 건설 당시부터 동양최고의 규모를 자랑하였다. 1987년에 국철 사가선이 폐지되었고 1996년에는 선로 부분이 철거되어 새롭게 산책길로 정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機械学会黎明期の学術図書

A Group of Publications by JSME in its Early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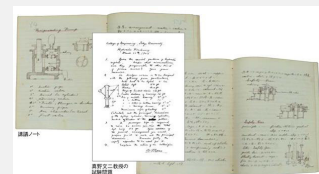
기계 학회잡지 창간호(1897년 12월, 마노 분지 교수의 제창으로 창설된 기계 학회는 「기계 학회잡지」창간호를 발간, 일본 내 기계 기술자의 정보수발신의 매체가 되었다), 기계공학 술어집(1901~1924년), 기계공학 편람(1934년, 당시까지의 기계공학과 기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기계학회 창립 이래의 대사업이었다.)



東京帝国大学水力学及び水力機講義ノート

Lecture Note "Hydraulics and Hydraulic Machinery" by Professors Bunji MANO and Ariya INOKUTY at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이 자료는 1905년 당시의 도쿄 제국대학 공학부 기계공학과 강의 노트이다. 제1권은 『수리학 및 수력기(水力学及水力機)』로, 전반의 Hydraulics(수리학)는 이노구치 아리야(井口 在屋) 교수, 후반의 Hydraulic Machinery(수력기계)는 마노 분지(真野 文二)교수의 강의내용이다. 수업 중에 배포된 자료, 시험 문제의 프린트 등에서 당시의 레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주요지표

항목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경기동향지수		기업도산건수	국내기업물가지수 (총평균)
단위	전기대비연율 %	전기대비연율 %	先行DI %	一致DI %	건	전년대비 %
2004년	1.6	2.7	2004년	—	13,679	1.3
2005년	r 0.7	1.9	2005년	—	12,998	1.7
2006년	r 1.4	r 2.4	2006년	—	13,245	2.2
05년 4~6월	r 2.9	r 4.6	2007년 2월	25.0	1,102	1.2
7~9월	r 0.2	r 1.4	3월	33.3	1,247	1.4
10~12월	r 2.0	r 3.1	4월	16.7	1,121	1.8
06년 1~3월	0.9	r 1.8	5월	45.8	1,310	1.7
4~6월	r 1.9	r 3.2	6월	75.0	1,185	1.8
7~9월	r -0.4	r -0.4	7월	66.7	1,215	1.9
10~12월	r 5.1	r 5.3	8월	33.3	1,203	1.5
07년 1~3월	r 2.1	r 3.3	9월	0.0	1,047	1.3
4~6월	r -1.8	r -1.8	10월	p 20.0	1,260	2.0
7~9월	r 0.7	r 1.5	11월	..	1,213	p 2.3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생선식품 제외) 전년대비	광공업생산지수 제외 전년대비	기계수주 (선박, 전력 제외) 前 季調, 전년대비	신설주택착공 未季調	소비지출 (전세대) 전년대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점포조정필 전년대비	승용차판매대 수(보통, 소형 · 경차)
단위	전년대비 %	전년대비 %	季調, 전년대비 %	戶	전년대비 %	점포조정필 전년대비 %	대
2004년	-0.1	5.5	4.4	1,189,049	0.4	-3.5	4,768,131
2005년	-0.1	1.1	7.1	1,236,175	-0.8	-2.3	4,748,409
2006년	0.1	4.8	4.0	1,290,391	-1.9	-1.2	4,641,732
2007년 2월	-0.1	0.7	-4.9	87,360	1.2	0.5	424,937
3월	-0.3	-0.3	-4.5	99,488	0.1	-1.1	639,497
4월	-0.1	-0.2	2.2	107,255	1.1	-1.8	290,062
5월	-0.1	-0.3	5.9	97,076	0.4	-0.8	307,077
6월	-0.1	1.3	-10.4	121,149	-0.1	0.9	373,185
7월	-0.1	-0.4	17.0	81,714	-0.2	-3.8	358,019
8월	-0.1	3.5	-7.7	63,076	1.4	-0.1	277,557
9월	-0.1	-1.4	-7.6	63,018	3.0	-2.0	415,993
10월	0.1	p 1.6	12.7	76,920	0.8	p 1.8	335,886
11월	..	..	..	..	..	..	p 364,491

항목	조정외노동시 간(전산업)	완전실업률	유효구인배율	경상수지	무역·서비스 수지	자본수지	무역액(주간배이스)	
단위	季調	季調	季調	억엔	억엔	억엔	수출	수입
2004년	시간	%	배	억엔	억엔	억엔	억엔	억엔
2004년	10.3	4.7	0.83	186,184	101,961	17,370	611,770	492,166
2005년	10.4	4.4	0.95	182,591	76,930	-140,068	656,565	569,494
2006년	10.7	4.1	1.06	198,390	73,336	-122,959	752,462	673,443
2007년 2월	10.9	4.0	1.05	23,990	10,242	-17,621	64,177	54,431
3월	11.4	4.0	1.03	32,879	17,900	-38,968	75,127	58,845
4월	11.4	3.8	1.05	19,622	5,021	-8,682	66,329	57,117
5월	10.6	3.8	1.06	21,255	4,195	-25,910	65,650	61,817
6월	10.7	3.7	1.07	15,164	11,444	-9,936	72,844	60,639
7월	10.8	3.6	1.07	p 18,559	p 4,588	p -19,042	70,634	64,022
8월	10.5	3.8	1.06	p 20,810	p 6,845	p -18,623	70,283	62,946
9월	10.8	4.0	1.05	p 28,831	p 15,826	p -23,935	72,703	56,363
10월	p 11.1	4.0	1.02	p 22,291	p 9,223	p -12,489	75,066	p 64,989
11월	..	..	..	..	..	..	..	..

(출처) 내각부, 일본은행, 동경상공리서치, 총무성통계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후생노동성, 재무성 (주) p는 속보, r는 정정. GDP성장률은 실질치의 산정을 연쇄방식에 의해 변경. 소비자지출은 전세대(농림어가세대를 포함)의 수치. 조정외노동시간은 사업소규모 5인 이상

회원 동정 & 단신

■ 11월 27일 오후 서울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경련이 주최한 '희망2008 사랑 나눔음악회'에서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13~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했던 조 회장 등 대표단은 후쿠다 일본 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수 세계박람회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국 대표단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일 양국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중단돼 있는 한일FTA협상이 재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박태준(朴泰俊)

명예회장 (포스코 명예회장)이 11월 8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박태준 전기' 출판기념회 겸 80회 생일잔치 행사를 가졌다. 박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20세기 파란만장한 역사의 격동 한복판에서 살아온 것 같다"며 "위인 전기가 나온 데 큰 부담을 느끼나 과거에 맡았던 국가 일들을 위해 세계 일류를 추구하며 일말의 사심 없이 투신했다는 자부심만은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손경식(孫京植) 고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0월 30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방한 중인 존 발다치 미국 메인(Main)주 주지사와 '민간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 이희범(李熙範) 고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1월 26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한우호협회가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한국 경제계 대표인사에게 주는 한중우호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 김기문(金基文) 고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월 1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된 '제34차 세계중소기업자대회'에 참석,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김윤(金鈞) 부회장

(삼양사 회장)은 12월 5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신성장동력포럼」에서 대표를 맡아 진행하였다.



본 포럼은 우리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내년부터 매월 둘째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제3차 포럼은 2008년 1월 8일(화)에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창조적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김희용(金熙勇) 부회장

(동양물산 기업 회장, 주한불가리아 명예영사)은 최근 한국과 불가리아의 경제·문화 증진과 우호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불가리아 파시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2002년에도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불가리아 최고 훈장인 '마다르스키 코니크'를 받았을 바 있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10월 29일 서울 신문로1가 본사에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를 만나 양국간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박 부회장과 피초 총리는 금호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슬로바키아 화가 스타니슬라브 하란고조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 신동빈(辛東彬) 부회장

(롯데그룹 부회장)은 10월 30일 주한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양국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훈장 '레지옹 도뇌르'를 받았다. 신 부회장은 그동안 롯데그룹의 유통망을 통해 프랑스 제품과 문화를 소개하고 프랑스 관련 행사에 다양한 후원을 하는 등 한불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해 이번 훈장을 받게 됐다.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레지옹 도뇌르'는 프랑스의 정치·문화·경제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 우석형(禹石亨) 부회장

(신도리코 회장)이 세계 디지털복사기 시장에서 '디지털스(DGwox)'바람을 일으키며,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프린터·팩시밀리·스캐너 등의 여러 사무기능을 통합시킨 신개념 복합기 '디지털스'를 중심으로 해외 마다지웁스의 성공에는 사무용 기기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는 '크로스오버' 추세를 내다본 우 부회장의 경영 판단이 큰 몫을 했다.



■ 윤종용(尹鍾龍)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올해의 명예회원(Honorary Member)'으로 선정됐다. IEEE 이사회는 1981년부터 통상 매년 한 명을 명예회원으로 뽑는다. 명예회원은 협회 회원이 아니지만 컴퓨터·전자 분야에 크게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평생 회원의 권리를 주며, 한국인이 명예회원이 된 것은



윤 부회장이 최초다. 올해에는 빌 게이츠 부부, 어도비사 설립자인 존 워낙 등이 윤 부회장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IEEE는 선정 이유와 관련, "전자 산업에서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과 공학 교육 발전에 뛰어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구택(李龜澤) 부회장

(포스코 회장)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200명이 뽑은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이는 한국경제TV가 최근 방한했던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기준에 맞는 CEO를 조사한 결과다. 워런 버핏은 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능하고 정직한 CEO가 경영하며 합리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 이길현(李吉鉉) 감사

(경원 회장)가 12월 24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에서 관광산업부문을 수상했다. 이 감사는 2000년 제27대 제주관광협회장으로 추대돼 분열된 관광업계를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리더십으로 통합하고, 창의적인 마케팅기법을 도입해 관광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취임 당시 300만명이던 관광객을 500만명까지 끌어올렸고, 2006년 제주방문의 해 사업 유치, 제주-도쿄 직항로 개설 등에도 힘썼다.



■ 지난 12월 3일 개최된 한일산업·기술 협력재단 2007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조석래(趙錫來) 회장이 제6대 이사장으로 재추대되어 연임되었으며, 허남정(許南整) 전 무이사도 상근임원으로 연임되었다. 



☞ **2007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실적**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29(월)~2/9(금)	경영관리연수(1진-20명) 실시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2	8(목)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개최	한국 서울
	9(금)~13(화)	제8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치바
	15(목)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26(월)~3/9(금)	경영관리연수(2진-21명) 실시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3	5(월)	한일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7(수)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 서울
4	12(목)~13(금)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한국 부산
	13(금)	한일재단 연락협의회 개최	한국 부산
	9(월)~20(금)	생산관리연수(21명) 실시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5	14(월)~8/30(목)	생산성향상기술컨설팅(7개사) 지도	한국 전국
	27(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개최	한국 서울
	22(화)~25(금)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15개사) 파견	일본 오사카
	5월~8월	생산성향상컨설팅(7개사) 지도실시	한국
6	18(월)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20개사) 파견	일본 도쿄
	20(수)~24(일)	아시아산업기술페어 2007(15개사) 개최	일본 키타큐슈
7	1(일)~13(금)	품질관리연수(30명) 실시	일본 도쿄
	10(화)~13(금)	제1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한국 부산
	18(수)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23(월)~11/10(토)	지식산업기술연수(23명/111일간) 파견	일본 도쿄
8	5(일)~9(목)	제9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도쿄
	20(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10	24(수)~26(금)	제77차 한일비즈니스상담회 개최	일본 도쿄
	24(수)	한일산업협력세미나 개최	한국 서울
11	7(수)~10(토)	제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한국 울산
	9(금)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20개사) 유치	한국 서울
	9(금)	2007 한일아웃소싱상담회(15개사) 유치	한국 서울
	10(토)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개최	한국 서울
	12(월)~14(수)	제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일본 요코하마
	12(월)~17(토)	제20회 한일산업기술교류미션(30개사) 파견	일본 히로시마,오카야마
	19(월)~24(토)	차세대경영혁신벤처마킹(18명) 연수	일본 나고야
	26(월)~29(목)	제7회 한일환경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일본 쿠마모토
12	12(수)~14(금)	일한경제협회와의 정례업무협의 개최	일본 도쿄, 치바

>>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이사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부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부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 홍소영 사원 02-3014-9888 syhong@kjc.or.kr